

2025학년도 KU모의논술 인문사회계 I 문제 해설

1 출제 의도

2025년도 대비 모의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생활에 필요한 사고력, 읽기 능력, 쓰기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 문제에 포함된 모든 제시문과 도표를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인용함으로써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반영했다. 개념에 대한 설명문, 도표, 문학 작품 등 학문 분야와 성격을 달리하는 다양한 제시문을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이면적 요소에 대한 정확하고 깊이 있는 통찰을 요구함으로써 논술우수자 전형에 필요한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문제 1]은 [가]와 [나]를 참고하여 [다]의 도표를 분석하는 것이다. [가]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인간의 특성이며, [나]는 인공지능 시대에 다시 물어야 하는 인간의 본질과 삶의 의미에 대한 것으로, 둘 모두 인간다움에 대해 탐구하는 주제를 갖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또한, [가]와 [나]를 종합하여, 인간의 불완전함과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함, 결핍 등이 초래한 불안이나 공포, 고통과 부정적 감정이 오히려 인간으로 하여금 선한 행동을 하게 하거나, 진정한 실존을 회복하게 하거나, 유연성과 창의성이라는 특성을 갖게 하는 순기능을 행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의 도표는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인데,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인해 사라질 '자동화 대체 확률이 높은 직업'과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자동화 대체 확률이 낮은 직업'을 대별해 보여 준다. 도표에 따르면 단순반복적인 일이나 정보를 규칙에 따라 처리하는 기계적인 업무는 로봇이나 인공지능에 의해 쉽게 대체될 것이며, 예술과 관련된 창의적 직업 군이나 유연성이 필요한 일은 인간의 몫으로 남을 것이다. 이를 통해 창의성과 유연성이야말로 '사람의 길'을 가게 하는 인간다움의 요체를 알 수 있다.

[문제 2]는 [가], [나]와 관련해 [라]에 대해 논할 것을 요구한다. [가], [나]는 인간 고유의 인간다움에 대해 탐구하며 기계와 다른 인간의 특성을 인간의 약점 및 유연성과 창조성에서 찾았다. 이를 [라] 소설에 적용하여 이면적 의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라]는 김승옥의 '역사(力士)'라는 단편소설이다. 여기에는 1960년대라는 시간적 배경으로 두 공간적 배경이 설정되는데 하나는 '신식 양옥집'이고, 다른 하나는 '창신동의 판잣집'이다.

두 공간은 서로 다른 생활 방식을 보여 주고 있다. '신식 양옥집'의 생활 방식을 대표하는 인물은 할아버지이다. 할아버지는 양옥집의 가장으로서 기계적 질서를 강조한다. 한편, 서 씨는 창신동 빈민가에서의 삶의 양식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는 모두가 잠든 새벽, 동대문 성벽의 돌을 옮기고 대낮에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돌의 위치를 보며 흐뭇해한다. 또한, 서 씨는 그가 가진 힘으로 자기 발전이나 성공을 꾀하기보다는, 임금으로 환산되지 않는 자기만족이나 선조의 위력을 물려받았다는 자부심을 가질 뿐이다. 이렇게 그의 힘은 기계적으로 평가되지 않는, 세상의 기준과 틀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이런 서 씨를 '나'는 '역사(力士)'라고 불렀다. 역사는 단지 힘이 센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서 씨는 인간적 결핍과 고통을 나름의 방식으로 승화하며, 자신을 규격에 맞춰 가두려는 세상에서 벗어나 사람의 길을 찾고자 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역사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양옥집'과 다른 '빈민가' 삶의 양식을 이해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나'가 관찰한 서 씨의 삶에 적절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25학년도 모의논술고사는 글을 통합적이고 분석적으로 이해하는 능력, 문학 이면의 의미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대상에 적용하는 지식의 활용 능력, 인간다움에 대해 숙고하는 성찰 능력을 평가 대상으로 삼고 있다. 건국대학교는 2025년도 KU 논술우수자 전형에 통하여 이러한 비판적, 창의적, 성찰적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것임을 모의논술고사로서 예시하는 바이다.

2 문항 해설

▶ 1번 문제

[문제 1]은 [가]와 [나]를 참고하여 [다]의 도표를 분석하는 것이다. [가]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인간의 특성이며, [나]는 인공지능 시대에 다시 물어야 하는 인간의 본질과 삶의 의미에 대한 것으로, 둘 모두 인간다움에 대해 탐구하는 주제를 갖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가]는 사르트르와 하이데거가 말하는 인간의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사르트르에 따르면,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나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 선택에 책임이 뒤따르는 것을 의식하는 인간은 불안의 감정을 갖는다. 이 감정은 인간으로 하여금 선한 행동을 결심하고 실행하게 한다. 또한, 하이데거는 자기의 존재를 문제 삼고 있는 특별한 존재자인 인간은 항상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다고 하였다. 이런 불안과 공포는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주체적 결단을 내리게 함으로써 자신의 진정한 실존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나]는 인공지능의 시대에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없는 인간의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인공지능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인간이 해 오던 많은 일을 기계가 대신하고 있다. 인간적 약점을 갖지 않는 인공지능과 기계와 공존하는 상황은 인간다움에 대해 근원적 질문을 고민하게 한다. [나]는 그에 대한 답으로 인간이 느끼는 '결핍과 그에 따른 고통'을 내놓았다. 결핍과 고통을 동력으로 이를 극복하며 생존하기 위해 인류는 역사와 문명을 일궈왔다. 그러한 과정에서 인간은 놀라운 유연성과 창의성이라는 생존의 방법을 체득할 수 있었다.

[가]와 [나]를 종합하면, 인간의 불안전함과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함, 결핍 등이 초래한 불안이나 공포, 고통과 부정적 감정이 오히려 인간으로 하여금 선한 행동을 하게 하거나, 진정한 실존을 회복하게 하거나, 유연성과 창의성이라는 특성을 갖게 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즉, 인간의 약점이 오히려 인간의 특징점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다]의 도표는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주는데,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인해 사라질 '자동화 대체 확률이 높은 직업'과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자동화 대체 확률이 낮은 직업'을 대별해서 보여 준다. 이 도표의 항목 중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할 수 있다.

먼저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직업군은 콘크리트공이나 제품 조립원 등으로서, 로봇은 불안이나 공포 등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인간보다 한결같이 정확하게 단순반복적인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세 행정 사무원이나 경리 사무원 등의 직업은 복잡한 정보를 일정한 규칙에 의해 처리하는데 이러한 사무원의 업무는 인공지능에 의해 쉽게 대체될 수 있다. 이에 비해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하는 직업은 자동화로 대체될 확률이 높은 직업군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유연성이라는 인간의 특성이야말로 기계와 경쟁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볼 만하다.

한편, 자동화 대체 확률이 낮은 직업은 화가, 작가, 작곡가, 무용가, 가수 등으로서 이들은 창의성이 필요한 예술 관련 직업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및 분장사도 자동화로 대체될 가능성이 적은 직업으로 꼽을 수 있는데, 메이크업과 분장을 하기 위해서는 천차만별인 사람의 생김새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창의성과 유연성이야말로 인간 고유의 능력을 살려 발전시켜 나아가며 인간다움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인간의 약점인 불안을 포함한 부정적 감정,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써의 유연성과 창의성이라는 능력을 도표와 연결해 설명할 수 있는지가 1번 문항이 요구하는 정확한 자료 분석의 관건이 된다.

▶ 2번 문제

[문제 2]는 [가], [나]와 관련해 [라]에 대해 논할 것을 요구한다. [가], [나]는 인간 고유의 인간다움에 대해 탐구하며 기계와 다른 인간의 특성을 인간의 약점 및 유연성과 창조성에서 찾았다. 이를 [라] 소설에 적용하여 이면적 의미 구조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인물 형상을 개념에 입각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김승옥의 '역사(力士)'라는 단편소설이다. 여기에는 1960년대라는 시간적 배경과 두 공간적 배경이 설정되는데 하나는 '신식 양옥집'이고, 다른 하나는 '창신동의 판자집'이다. 두 공간은 서로 다른 생활 방식을 보여 주고 있다. '신식 양옥집'의 생활 방식을 대표하는 인물은 할아버지이다. 할아버지는 양옥집의 가장으로서 기계적 질서를 강조한다. '양옥집'에서는 정확한 시간에 공부하고 제작하고 음악 활동을 한다. '나'는 불현듯 기타를 치다가 할아버지에 의해 제지당하며, '나'가 기타를 칠 수 있는 시간은 재봉틀을 돌리는 시간으로 제한된다.

이러한 기계적 엄격성은 ① 시간적 질서에 대한 강박("계획성 있는 움직임"), ② 인간적 감정에 대한 '그늘 없는' 태도("약간의 균열쯤은 금방 땀뺌해 버릴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는 전진적 태도"), ③ 생산성과 창조성에 대한 믿음("무엇인가 창조해 내고 있다는 자부심") 등으로 드러난다. 한편, 창신동 빈민가에서의 삶은 이와는 정반대이다. ① 통금 시간을 무시하고 새벽 두세 시에도 나다닐 정도로 시간적 질서가 없으며, ② 절망감 같은 부정적 감정이 마당을 넘어 방마다 들어차 있고, ③ 생산성이나 창조성과는 거리가 멀다.

서 씨는 창신동 빈민가에서의 삶의 양식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는 모두가 잠든 새벽, 동대문의 돌을 옮기고 대낮에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돌의 위치를 보며 흐뭇해한다. 또한, 서 씨는 그가 가진 힘으로 자기 발전이나 성공을 꾀하기보다는, 임금으로 환산되지 않는 자기 만족이나 선조의 위력을 물려받았다는 자부심을 가질 뿐이다. 이렇게 그의 힘은 세상의 기계적 기준과 틀에서 벗어나 있다.

이런 서 씨를 '나'는 '역사(力士)'라고 불렀다. 역사는 단지 힘이 센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적 결핍과 고통을 나름의 방식으로 승화하며, 자신을 규격에 맞춰 가두려는 세상에서 벗어나 사람의 길을 찾고자 한다는 점에서 서 씨는 진정한 역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양옥집'과 다른 '빈민가' 삶의 양식을 이해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나'가 관찰한 서 씨의 삶에 적절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3 채점 기준

▶ 1번 문제

채점 기준		배점
<p>[문제 1]은 [가]와 [나]를 참고하여 [다]의 도표를 분석하는 것이다. [가]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인간의 특성이며, [나]는 인공지능 시대에 다시 물어야 하는 인간의 본질과 삶의 의미에 대한 것으로, 둘 모두 인간다움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적 공통점과 더불어, [가]와 [나]는 인간의 불완전함과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함, 결핍 등이 초래한 불안이나 공포, 고통과 부정적 감정이 오히려 인간으로 하여금 선한 행동을 하게 하거나, 진정한 실존을 회복하게 하거나, 유연성과 창의성이라는 특성을 갖게 하는 순기능을 행하였다는 중심 내용을 갖는다. 이러한 비교를 바탕으로 인간적 약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갖추게 된 유연성과 창의성의 능력을 인간다움의 특징으로 파악하며, 이를 참고하여 로봇과 인공지능과 공존할 수 있는 '사람의 길'이라는 관점에서 도표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p>		40점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내용	
[가], [나], [다]의 핵심 내용 대한 이해	<p>① [가]와 [나]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론의 핵심 개념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가?</p> <p>[가]는 사르트르와 하이데거가 말하는 인간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르트르에 따르면,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으나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 선택에 책임이 뒤따르는 것을 의식하는 인간은 불안의 감정을 갖는다. 이 감정은 인간으로 하여금 선한 행동을 결심하고 실행하게 한다. 또한, 하이데거는 자기의 존재를 문제 삼고 있는 특별한 존재자인 인간은 항상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다고 하였다. 이런 불안과 공포는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주체적 결단을 내리게 함으로써 자신의 진정한 실존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p> <p>[나]는 인공지능의 시대에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없는 인간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인공지능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인간이 해 오던 많은 일을 기계가 대신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인간다움에 대해 근원적 질문을 던진다. [나]는 그에 대한 답으로 인간이 느끼는 결핍과 그에 따른 고통을 내놓았다. 결핍과 고통을 동력으로 이를 극복하며 생존하기 위해 인류는 역사와 문명을 일궈왔다. 그러한 과정에서 인간은 놀라운 유연성과 창의성이라는 생존의 방법을 체득할 수 있었다.</p>	

채점 기준		배점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내용	
[가], [나], [다]의 핵심 내용 대한 이해	<p>② [가]에 제시된 실존주의적 인간관과 [나]에 제시된 인공지능 시대 인간관을 연결 지을 수 있는가?</p> <p>[가]와 [나]는 인간의 불안전함과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함, 고통, 결핍 등이 초래한 불안이나 공포, 고통과 부정적 감정이 오히려 인간으로 하여금 선한 행동을 하게 하거나, 진정한 실존을 회복하게 하거나, 유연성과 창의성이라는 특성을 갖게 하는 순기능을 행하였다는 중심 내용을 갖는다. 이런 방식으로 둘을 비교하고 종합할 수 있어야 한다.</p> <p>③ [다]의 [도표]에 제시된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p> <p>[도표]는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주는데,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인해 사라질 '자동화 대체 확률이 높은 직업'과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자동화 대체 확률이 낮은 직업'을 대별해 보여 준다.</p>	40점
[가], [나], [다]의 유기적 연결성	<p>④ [가]와 [나]를 [다]와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해석할 수 있는가?</p> <p>먼저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직업군은 콘크리트공이나 제품 조립원 등으로서, 로봇은 불안이나 공포 등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인간보다 한결같이 정확하게 단순반복적인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세 행정 사무원이나 경리 사무원 등의 직업은 복잡한 정보를 일정한 규칙에 의해 처리하는데 이러한 사무원의 업무는 인공지능에 의해 쉽게 대체될 수 있다. 이에 비해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하는 직업은 자동화로 대체될 확률이 높은 직업군에 없는 것으로 보아 유연성이라는 인간의 특성이야말로 기계와 경쟁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겠다.</p> <p>한편, 자동화 대체 확률이 낮은 직업은 화가, 작가, 작곡가, 무용가, 가수 등으로서 이들은 창의성이 필요한 예술 관련 직업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및 분장사도 자동화로 대체될 가능성이 적은 직업으로 꼽을 수 있는데 메이크업과 분장을 하기 위해서는 천차만별인 사람의 생김새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창의성과 유연성이야말로 인간 고유의 능력을 살려 발전시켜 나아가며 인간다움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p>	
정합적인 논지 전개 능력과 설득력 있는 표현 능력	<p>⑤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절히 잘 구성해서 짜임새 있고 설득력 있게 전개하고 있는가? 적절한 어휘 선택과 정확한 문장 구성, 자연스러운 문장 연결 등 언어적 표현력과 글쓰기 능력을 훌륭히 발휘하고 있는가?</p>	

평가	평가 내용
A+	100 ①, ②, ③, ④, ⑤ 모두 훌륭히 충족
A	95 ①에서 ⑤까지 모두 무난히 기술하였으나 한 사항이 다소 미흡
B+	9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네 가지 사항 충족
B	85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네 가지 사항은 충족하였으나 그중 한 사항이 다소 미흡
C	75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세 가지 사항 충족
D	6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두 가지 사항 충족
E	5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한 가지 사항 충족
F	0 출제 의도와 전혀 무관한 답안 등은 최하

※ 평가 등급 기준 및 배점은 실제 논술고사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2번 문제

채점 기준	배점
<p>[문제 2]는 [가], [나]와 관련해 [라]에 대해 논할 것을 요구한다. [가], [나]는 인간 고유의 인간다움에 대해 탐구하며 기계와 다른 인간의 특성을 인간의 약점 및 유연성과 창조성에서 찾았다. 이를 [라] 소설에 적용하여 이면적 의미 구조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인물 형상을 개념에 입각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p>	60점

채점 기준 **배점**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내용
[가]와 [나]에 대한 이해	<p>① [가]와 [나]의 핵심 개념을 바르게 파악하였는가?</p> <p>[가]는 사르트르와 하이데거가 말하는 인간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르트르에 따르면,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으나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 선택에 책임이 뒤따르는 것을 의식하는 인간은 불안의 감정을 갖는다. 이 감정은 인간으로 하여금 선한 행동을 결심하고 실행하게 한다. 또한, 하이데거는 자기의 존재를 문제 삼고 있는 특별한 존재자인 인간은 항상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다고 하였다. 이런 불안과 공포는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주체적 결단을 내리게 함으로써 자신의 진정한 실존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p> <p>[나]는 인공지능의 시대에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없는 인간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인공지능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인간이 해 오던 많은 일을 기계가 대신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인간다움에 대해 근원적 질문을 던진다. [나]는 그에 대한 답으로 인간이 느끼는 고통과 그에 따른 고통을 내놓았다. 고통과 고통을 동력으로 이를 극복하며 생존하기 위해 인류는 역사와 문명을 일궈왔다. 그러한 과정에서 인간은 놀라운 유연성과 창의성이라는 생존의 방법을 체득할 수 있었다. 인간적 약점을 갖지 않는 인공지능과 기계와 공존하는 시대, 인간적 고통과 부족함을 지닌 인간의 특성을 바탕으로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사람의 길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p>
	<p>② [라]와 연결하기 위해 [가]와 [나]의 연관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p> <p>[가]와 [나]는 인간의 불완전함과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함, 고통 등이 초래한 불안이나 공포, 고통과 부정적 감정이 오히려 인간으로 하여금 선한 행동을 하게 하거나, 진정한 실존을 회복하게 하거나, 유연성과 창의성이라는 특성을 갖게 하는 순기능을 행하였다는 중심 내용을 갖는다. 이런 방식으로 둘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p>
[라]에 대한 이해	<p>③ [라]에 묘사된 상황과 인물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였는가?</p> <p>[라]는 김소진의 '역사(力士)'라는 단편소설이다. 여기에는 1960년대라는 시간을 배경으로 두 공간적 배경이 설정되는데 하나는 '신식 양옥집'이고, 다른 하나는 '창신동의 판잣집'이다. 두 공간은 서로 다른 생활 방식을 보여 주고 있다. '신식 양옥집'의 생활 방식을 대표하는 인물은 할아버지이다. 할아버지는 양옥집의 가정으로서 기계적 질서를 강조한다. '양옥집'에서는 정확한 시간에 공부하고 제작하고 음악 활동을 한다. '나'는 불현듯 기타를 치다가 할아버지에 의해 제지당하며, '나'가 기타를 칠 수 있는 시간은 재봉틀 돌리는 시간으로 제한된다.</p> <p>이러한 기계적 엄격성은 ① 시간적 질서에 대한 강박("계획성 있는 움직임"), ② 인간적 감정에 대한 '그늘 없는' 태도("악간의 균열쯤은 금방 땀질해 버릴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는 전진적 태도"), ③ 생산성과 창조성에 대한 믿음("무엇인가 창조해 내고 있다는 자부심") 등으로 드러난다. 한편, 창신동 빈민가에서의 삶은 이와는 정반대이다. ① 아무 때나 집에 들어오고 새벽 두세 시에도 이웃의 잠을 깨울 정도로 시간적 질서가 없으며, ② 절망감 같은 부정적 감정이 마당을 넘어 밤마다 들어차 있고, ③ 생산성이나 창조성과는 거리가 멀다.</p>
[가]와 [나]의 근거한 [라]의 분석	<p>④ [가]와 [나]의 핵심 개념을 활용하여 [라]의 상황과 인물에 대해 깊이 있게 논하였는가?</p> <p>서 씨는 창신동 빈민가에서의 삶의 양식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는 모두가 잠든 새벽, 동대문의 돌을 옮기고 대낮에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돌의 위치를 보며 흐뭇해한다. 또한, 서 씨는 그가 가진 힘으로 자기 발전이나 성공을 꾀하거니와, 임금으로 환산되지 않는 자기만족이나 선조의 위력을 물려받았다는 자부심을 가질 뿐이다. 이렇게 그의 힘은 기계적으로 평가되지 않는, 세상의 기준과 틀에서 벗어나 있는 그 무엇이다.</p> <p>이런 서 씨를 '나'는 '역사(力士)'라고 불렀다. 역사는 단지 힘이 센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서 씨는 인간적 고통과 고통을 나름의 방식으로 승화하며, 자신을 규격에 맞춰 가두려는 세상에서 벗어나 사람의 길을 찾고자 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역사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양옥집'과 다른 '빈민가' 삶의 양식을 이해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나'가 관찰한 서 씨의 삶에 적절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p>
정합적인 논지 전개능력과 설득력 있는 표현 능력	<p>⑤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절히 잘 구성해서 짜임새 있고 설득력 있게 전개하고 있는가? 적절한 어휘 선택과 정확한 문장 구성, 자연스러운 문장 연결 등 언어적 표현력과 글쓰기 능력을 훌륭히 발휘하고 있는가?</p>

60점

평가	평가 내용	평가 내용
A+	100	①, ②, ③, ④, ⑤ 모두 훌륭히 충족
A	95	①에서 ⑤까지 모두 무난히 기술하였으나 한 사항이 다소 미흡
B+	9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네 가지 사항 충족
B	85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네 가지 사항은 충족하였으나 그중 한 사항이 다소 미흡
C	75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세 가지 사항 충족
D	6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두 가지 사항 충족
E	5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한 가지 사항 충족
F	0	출제 의도와 전혀 무관한 답안 등은 최하

※ 평가 등급 기준 및 배점은 실제 논술고사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 예시 답안

▶ 1번 문제

[가]의 사르트르는 선택에 따른 불안의 감정이 선한 결심과 행동을 추동한다고 하며,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진정한 자신의 존재 자체를 파악하는 계기가 된다고 한다. [나]는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다움을 되물으며 그 답을 인간의 결핍과 그에 따른 고통에서 찾는다. 기계와 달리 결핍과 고통을 느끼는 인간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연성과 창의성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와 [나]는 인간의 약점과 결핍이 오히려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계기가 된다고 말한다.

[다]에 따르면 단순반복적인 콘크리트공, 제품 조립원, 장비 조작원 등의 업무, 정보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처리하는 사무원의 업무 등은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화가, 작가, 연주자 등 예술 관련 직업은 인공지능이나 로봇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낮다. [가], [나]의 관점에서 볼 때 대체 가능성이 적은 직업군들의 특징은 유연성과 창의성이 필요한 분야이다. 인공지능에 의해 많은 직업이 소멸될 위기 상황에서 인간은 결핍과 불안, 고통을 느낄 것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간다움의 발현으로서 유연성과 창의성을 근간으로 하는 직업들이 가장 오래 살아남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598자]

▶ 2번 문제

[가]의 사르트르와 하이데거는 인간다움의 특징으로 각각 선택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들었다. 이렇게 인간적 결핍에서 비롯된 부정적 감정은 오히려 인간으로 하여금 선한 행동을 결행하게 하거나 진정한 자기 존재를 발견하게 하는 순기능을 행한다. [나]는 인간다움의 의미를 재규정해야 하는 인공지능 시대에도 결핍과 고통을 느끼는 인간의 약점이 기계와 달리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람의 길'을 만들어 냄을 강조한다.

[나]에서는 사람의 길을 고민하는 대학생 '나'가 등장한다. 그는 창신동 빈민가에서 살다가 깨끗하고 아늑한 양옥집으로 하숙을 옮겼다. 양옥집의 삶은 불안과 공포, 결핍, 고통과는 거리가 멀었다. 양옥집 사람들은 '약간의 균열쯤은 금방 땀질할 수 있다'는 식으로 부정적인 감정과 고통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기계처럼 정확한 시간에 맞춰 움직였다. 또 그 집 사람들은 무언가 창조하며 전진하는 듯한 스스로의 모습에 자부심을 갖는다.

'나'는 양옥집과 모든 것이 정반대인 창신동 빈민가에서의 삶과 사람들을 떠올렸다. 창신동 집은 절망과 같은 부정적 감정이 방마다 차 있는 곳이지만 '나'는 아무 때고 불현듯 감정이 요구할 때 기타를 칠 수 있었다. 서 씨의 사례로 보듯 창신동에서의 삶은 발전이나 생산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서 씨가 동대문 성벽의 돌을 옮기는 일이 그의 발전이나 높은 임금을 받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서 씨가 동대문 성벽의 돌을 번쩍 들어 자리를 바꾸는 모습을 보고 그가 '역사(力士)'임을 깨달았다. 공장장 인부인 그는 평소에 기계처럼 남들과 똑같이 일하고 남들과 똑같은 임금을 받으며 기계적인 세상에 적응해 갔지만 그는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돌의 위치를 보며 흐뭇해하거나, 선조로부터 이어진 자신의 힘을 자랑한다. 서 씨는 인간적 결핍과 고통을 나름의 방식으로 승화하며, 자신을 규격에 맞춰 가두려는 세상에서 벗어나 사람의 길을 찾고자 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역사가 할 수 있다. [984자]

5 자료 출처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윤리와 사상	황인표 외	(주)교학사	2020	157-158	[가]	×
국어	신유식 외	Mirae N	2020	309-310	[나]	×
통합사회	정찬우 외	동아	2020	137	[다]	×
문학	김동환 외	천재교과서	2020	31-35	[라]	×